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1호

김세훈의 스포츠IN

정승원 세리머니 논란...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옐로카드면 족하다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법원결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대한체육회 정몽규 축협회장 취임 승인...공식임기 시작

송종현 한경일보기자

김용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광주시 걷기협회 이사

건강복지 사회 실현, 장애인과 동행하는 걷기 문화

김용은 광주매일신문기자

용인시여성단체들..체육회장 규탄결의대회

용인여성단체 "여성비하 발언 용인시체육회장 사퇴해야"

이준구 뉴시스기자

용인시체육회 총회,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스포츠공정위원 선임 전권 위임

'막말 논란'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셀프 징계 심의 의혹

이영종 경인방송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정승원 세리머니 논란...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옐로카드면 족하다

정승원(FC서울)의 골 세리머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승원은 주말 서울에서 열린 대구FC전 후반 45분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기록한 데 이어 추가시간 어시스트까지 보태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다.

정승원은 동점골을 넣은 뒤 대구 원정 서포터스석 쪽으로 달려가 오른손을 귀에 대는 동작을 취했다. 상대 팬들의 야유나 조롱에 반응할 때 사용하는 제스처다. 이 장면 이후 양팀 선수들이 충돌했고 주심은 정승원에게 옐로 카드를 부여했다.

이 세리머니를 두고 “친정팀을 향한 도발”, “불필요한 자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승원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정승원은 경기 내내 대구 서포터스에게 극심한 야유를 받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정승원 세리머니보다 훨씬 강한 표현도 징계 없이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다. 제이미 바디(레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다음날 토트넘 팬들을 향해 ‘우승 패치’를 가리키며 조롱했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조슈아 저크지(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FA컵에서 아스널을 탈락시킨 후 관중석을 향해 총을 겨누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루이스 수아레스(리버풀)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이비드 모예스 당시 에버턴 감독을 향해 다이빙 흉내를 내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수아레스의 세리머니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선수들은 자신을 비난한 팬, 감독, 상대 선수들을 조롱할 권리가 있다”며 “선수들의 감정은 경기의 일부이며, 도발과 감정 표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디애슬레틱은 2009년 에마뉘엘 아데바요르가 맨체스터 시티 소속으로 아스널을 상대로 골을 넣은 뒤, 경기장을 가로질러 아스널 팬들 앞에서 세리머니를 펼친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까지 조롱당하며 뛰어야 했던 선수가 팬들에게 맞받아칠 권리조차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수아레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무사 데멜레, 주드 벨링엄 등은 ‘썬’ 세리머니를 종종 한다. “야유하지 마, 내가 누군지 보여줬잖아” “비난은 그만, 내가 해낸 거 봤지?” “시끄러운 상대 팬들, 조용히 하시죠”라는 아주 직설적인 메시지를 담은 세리머니다. 귀에 손을 대는 세리머니는 “내 말 안 들려?” “왜 조용해? 더 크게 말해봐”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야유하는 상대 팬들을 조롱하거나,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다. 손흥민, 파울로 디발라, 제이미 바디, 루카 모드리치 등이 가끔 했다. 킬리안 음바페, 지네딘 지단, 티에리 앙리, 박지성은 산책 세리머니를 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 차분하게 걸어가는 세리머니다. 이건 오히려 도발이나 조롱의 느낌을 더 세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도, 제스처도 없지만 “내가 이 정도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박지성은 2010년 5월4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일본과 평가전에서 전반 6분 골을 넣은 뒤 일본 관중을 둘러보며 산책 세리머니를 했다. 박지성은 “내가 전날 인터뷰에서 일본을 낮게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를 알게 된 일본 관중이 야유를 보내자 내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스처는 강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만은 다른 어떤 세리머니보다 분명했다.

귀에 손을 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리머니다. 목을 긁거나 총을 쏘거나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공격적이지도 않다. 대구 서포터스석으로 달려가 경기 내내 자신을 극도로 비난한 대구 팬들을 향해 귀에다 손을 댄 게 전부다.

감정 없는 축구는 존재할 수 없다. 정승원 세리머니 역시 ‘감정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대구를 떠나는 과정 등에서 정승원이 대구 팬들과 대구 선수들과 적잖은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정승원이 잘못된 것도 있다. 그건 그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비난받아야 한다.

선수는 로봇이 아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그 감정이 때로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정승원의 세리머니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던지는 냉정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최소한 그날, 그리고 최소한 서울월드컵경기장 안에서 보여준 정승원의 행동은 옐로카드 한 장으로 족하지 않을까.

대한체육회 정몽규 축협회장 취임 승인... 공식임기 시작

대한체육회가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취임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는 규정과 절차, 법리적 해석, 자정 의지,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몽규 회장의 인준을 통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체육회는 선수·지도자 보호 및 축구 종목의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조직 쇄신을 통한 '3대 혁신안' 이행을 약속받았으며 다만 향후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허정무, 신문선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된 정 회장은 약 1개월 만에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지난 2013년 축구협회 수장으로 처음 선출됐던 정몽규 회장은 세 차례 재임했다. 이어 두 차례 선거 파행 속에서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4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현재 중징계 요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체육회는 선거일 이후 선거·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와 결격사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인준 절차 지연에 따라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사회 개최, 전력강화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초·중·고 리그 운영 등 협회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준 이유를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오는 4월 4일 이사회를 개최,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광주시 걷기협회 이사

건강복지 사회 실현, 장애인과 동행하는 걷기 문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 인권 헌장을 제정하면서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인권이며, 모두에게 제약이 없는 신체활동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에는 여전히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머물러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 바로 보편적 신체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이 그들이다.

2025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4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완전 참여율이 35.2%로 첫 조사가 이뤄진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최고치라는 기쁨과 함께 대한민국 장애인 10명 중 3-4명이 운동을 한다는 사실이 고무적인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해의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49.5%임을 고려했을 때 아직 가야 할 길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답은 문제 속에 있다. 조사 결과 중 장애인이 주로 참여하는 운동 종목은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69.6%)',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로 '근처 야외·등산로·공원(49.3%)'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7.0%)'과 '체육시설(16.6%)' 이용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그 이유인즉슨 공공·민간 체육시설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개 장애 유형을 지체, 시각, 청각·언어, 발달, 뇌병변, 기타로 6개 유형, 장애 정도는 1-3급 중증과 4-6급 경증으로 분류한다. 즉,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장비와 공간 및 지원을 제공하는 체육시설이 비교적 드물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남구와 북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보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확대도 중요하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만드는 노력이 실효적이지 않을까? 이를 방증하듯 운동 비참여 장애인의 희망하는 운동 방식으로 '근처 야외에서 걷기 또는 산책(50.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건강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예산보다 강력한 원동력은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할 수 있다. 함께 해보자.

숨 고르기는 끝났다. 우리가 그려볼 대한민국의 걷기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통한 기본적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25회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장애인의 많은 참여,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걷기의 동행 문화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

용인여성단체 "여성비하 발언 용인시체육회장 사퇴해야"

용인시체육회장의 여성 비하발언과 관련, 이운송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여성단체연합회원 대표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용인시체육회장은 여성비하 저질 발언에 공개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분노한다"며 "여성들이 분칠하고 분위기 띄우는 도구이더냐. 110만 용인시 위상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이냐고 규탄했다.

이어 "양성평등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매우 이롭고 소중한 일인데도 '분칠한 사람이 술 따라야 제맛'이라는 비하발언이 웬말이냐"며 "여성단체들은 용인시체육회장의 자진사퇴와 진정한 사과가 있기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은 최근 용인시체육회 종목단체장 협의회 및 만찬자리에서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막말 논란'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셀프 징계 심의 의혹

[용인 = 경인방송]

(앵커)

막말 논란 중인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이번엔 셀프 징계 심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뽑은 위원에게 징계 심의를 받는다는 건데요.
이영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2024년) 직원들에 대한 막말로 논란을 빚었던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체육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심의 날짜는 오는 4월 2일.
하지만 징계 심의를 앞두고도 오 회장의 기행은 계속됐습니다.

오 회장은 지난 13일 종목단체 만찬장에서 여성 종목단체장 A씨에게 "분 냄새 나는 사람이 술을 따라야 제맛"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날 만찬장에 참석한 용인시 체육진흥과 공무원들에게 "따까리"라는 막말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오 회장이 셀프 징계 심의를 등에 업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규정상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시체육회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하지만, 총회는 이번 위원회 위원 선임 전권을 오 회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오 회장 본인이 뽑은 위원에게 징계 심의를 받는 겁니다.

[녹취/윤덕윤 용인시공무원노조위원장]

"전권을 총회에서 위임받아 체육회장이 그걸 또 임명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들이 징계위원회를 하면 결국 셀프 징계
아니겠냐?"

이에 대해 오 회장은 본인이 모르는 위원들을 선임했기에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녹취/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체육회로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가
누군지 저도 잘 몰라요."

경인방송 이영종입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죽이려다가 참아"...서울시체육회 '언어폭력' 가해자 징계 사유 해당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8_0003102517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 스포츠 계정 모태펀드 운용사 모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44103i>

"풋살장 사고 막자"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46곳 특별점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90900&code=61121111&cp=nv>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민간 보조금 '절반 이상'... 효율성 논란

<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50324/131267541/1>

특혜 채용 의혹 안동시체육회, 임원진 잇단 사의 표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07470002361?did=NA>

양산 '황산공원' 체육인들로 북적...'핫플레이스' 등극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966>

'개인정보 유출·보조금 전용 속내' ... 안동시체육회 '절체절명'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41033548515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에 앞장설 것"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4224>

"지방체육 위해 스포츠개혁 TF팀 운영할 것"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5641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